

갤럭시노트7 생산 일시 중단 결정

美 AT&T·T-모바일, 판매·교환 전면 중단 선언 따라... 한국 이통 3사 "지켜보는 상황"

삼성전자가 하반기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10일 삼성전자 협력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글로벌 생산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협력사 관계자는 "미국 이동통신사들도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무작정 생산할 수 없는 노릇이라 일시 중단이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중국 규제 당국 등 각국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취해진 조치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일환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미국 이동통신사 중 AT&T와 T-모바일이 고객 안전을 이유로 갤럭시노트7의 판매 및 교환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나왔다.

미국 2위 통신업체인 AT&T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최근 보도들을 근거로 이번에 보도된 사안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더 이상 새로운 갤럭시노트7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주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T-모바일 역시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발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형 갤럭시노트7 판매와 교환을 중단한다"며 "갤럭시노트7 판매와 교환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이통사들의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 보도와 관련 이통사들이 제품 판매 및 교환을 중단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



창업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팀스(TPS)타운을 방문해 창업팀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다"며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배터리 결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일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갤럭시노트7을 250만대 전량 회수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지난 1일 갤럭시노트7 재판매에 들어갔다.

하지만 교환된 단말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이어지자 미국 이통사들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미국에서 접수된 신고는 지금까지 최소 3건이다.

지난 5일 미국 켄터키주에서의 기내 발화 사고를 시작으로 8일에는 미국 텍사스주와 버지니아주에서도 교환된 갤럭시노트7 기기가 발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날 대만에서도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가 보고됐다.

한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황이다. /뉴시스

은행권 사회공헌지출 '금감'

2013년 5886억원→올 상반기 1080억원

은행의 사회공헌지출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5886억원에서 2014년 5012억원, 작년 461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6월말 지출금액은 1080억원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대기업의 사회공헌지출이 전년 대비 6.8%(1,872억)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현금배당금은 큰 폭으로 늘었다. 은행의 3년간 현금배당금 총액은 6조3289억원으로 2013년 1조2979억에서 2015년 2조3888억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은행권 영업이익은 3년간 22조 6881억이었으며 이 중 4대 은행(신한·우리·하나·국민)이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사회공헌지출 비중은 40%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총자산규모는 2013년부터 늘어 올해 1분기에는 1418조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3년간 은행의 당기순이익도 후자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현금배당금을 확대한 은행들이 사회공헌지출에는 인색하다"며 "국민들이 시중은행의 이익을 창출해주시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사회공헌사업을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 못한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이달 말부터 대부업에도 적용

이달 말부터 과도한 빚 독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빚 독촉 횟수는 1일 2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대부업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위 등록(금감원 위탁) 대상이 된 대형 대부업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채권추심회사뿐 아니라 채권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관련사항을 추가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의 부활과 매각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특별점검 방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틀 내에서 강도 높은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사의 채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또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를 의무화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리도록 했다.

채무독촉 횟수는 일 2회로 제한했다.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해서는 안 된다.

또,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방문 및 연락이 금지된다. /뉴시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차원의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과 함께 주 1회 이상의 가계부채 특별(TF)팀 회의체를 가동 중"이라며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2분기 전자지급 이용 하루 평균 3220억

전분기 대비 7.0% 상승... 간편결제서비스 확산되며 PG서비스 중심 증가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사용한 전자지급서비스 금액이 2분기 하루 평균 32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6년 2분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전자지급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322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 상승했다. 이는 200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이용건수도 하루 평균 2083만건으로 전기 대비 19.5% 증가했다.

이 중 전체 금액기준 서비스의 71.3%를 차지하고 있는 PG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229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9% 늘었다. 이용건수도 458만건으로 14.9% 상승했다. 온라인상에서 카드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이 확산된 영향이 가장 컸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121만건, 56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6.2%, 4.4% 늘었다. G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거래가 확정된 이후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의 서비스 이용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통카드를 중심으로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학기중 학생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일평균 이용건수가 1498만건으로 전기 대비 21.2% 뛰어올랐다. 일평균 이용금액은 274억원으로 전기 대비 14.4% 증가했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에 사용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큰 폭

으로 늘었다. 2013년 이후 축소됐던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다. 일평균 이용건수는 4만9311건으로 전기 대비 68% 늘었고, 이용금액은 90억원으로 35.8% 증가했다.

반면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여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75건, 이용금액은 320만원에 그쳤다. 이용건수는 전분기 대비 38.9% 늘었으나, 이용금액은 32.4% 줄었다.

지난 6월 말 현재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급매수는 14만매로 3월 말 대비 15.0% 감소했다.

전자화폐도 선불 교통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줄어드는 추세다. 하루 평균 이용건수와 금액이 각각 3.7%, 3.0% 줄었다.

한편 6월 말 현재 80개의 전자금융업자가 5개 업종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했다. /뉴시스

아이폰7 국내 출시 앞두고 아이폰6S 가격 인하 움직임

아이폰7의 21일 국내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아이폰6S 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이폰6S는 아이폰6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자 아이폰7의 직전 모델이다. 아이폰7출시로 재고가 되기 전에 미리 판매하려는 조치다.

9일 이동통신업체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는 아이폰6S 16GB 모델의 출고가를 기존 86만9000원에서 69만9600원으로, 아이폰6S 플러스 16GB 모델은 99만9900원에서 83만3800원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낮췄다.

SK텔레콤은 인하를 유보하고 있지만 21일 아이폰7 출시를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아이폰6S·6S 플러스 32GB 모델을 이통사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아이폰6S 32GB 출고가는 77만9900원, 아이폰6S 플러스 32GB는 91만9600원이다. 아이폰6S와 아이폰6S 플러스 32GB 모델은 전국 유플러스 매장 및 온라인 직영몰 U+Shop에서 구입할 수 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

